제14차 아세아 태평양 치과회의 및 제39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 14차 아태 치과회의 및 제 39차 대치협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8차 회의가 지난 9월 1일 서울 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 회의실 에서 예정대로 거행되었다. 이날 아태 조직 위원회(위원장 : 정동균)에서는 준비금 납부율이 60.4%임을 밝히고 특히 수련의, 공중보건의, 군진 등의 납부율이 극히 저조함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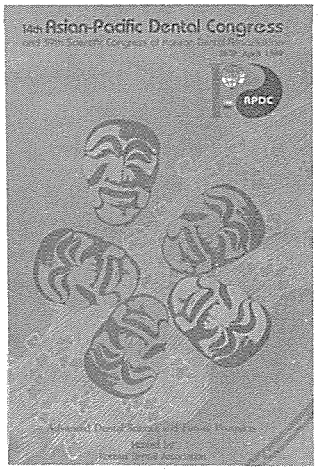
한편 아·태 조직위에서는 등록금 납부율 또한 8%로서 실적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모든 회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참여의식을 높이 수 있는 홍보대책등을 수립키로 하고 각 지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지난13일 2차안내문을 제작 완료하여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亞太회의 홍보는 지난해10월 1차안내문 및 포스터, 부채, 스티커등을 제작하여 FDI 마닐라대회를 비롯 각종 국내외 대회등에 적절하게 활용하는등 지속적으로 이어오다가 결정적인 홍보물인 2차안내문을 이번에 발간하게 된것이다.

2차안내문에는 丁東均조직 위원장 및 權彛赫 보사부장관의 인사말이 수록돼 있으며 대회 일정표(예정) 및 총회연자·연제등이 설명되어 있다. 또한 대회등록비관계, 숙박시설, KOEX전시장등이 잘 설명되어 있고 국내관광여행 코스의 설명이 수록돼있다.

이어서 속개된 각 분과위원회 별 업무보고를 듣는자리에서 총무분과 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FDI총회에서 아·태회의 및 대치협 종합학술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Booth(2m×2m)의 제공을 확약 받았음을 보고했다.



<14차 아·태 치과회의 및 제39차 대치협 종합학술대회 홍보용 책자 ; 美코코넥스社(대회 대행업체)제작>

각 분과위원회가 보고한 자세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총무분과위원회(양정강 사무총장)

1) 아·태홍보에 노력한 12명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냈음.

2) 홍콩발행 APDN에 실린 14차 APDC기사를 보고 참석의사를 보내왔음(홍콩 1,

호주1, 필리핀6, 중국10)

3) 보사부로부터 정부보조금이 2,127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함.
4) KAL에 항공권보조 5장을 구주 1매, 미주4매를 쓰겠다고 회신을 보냈음.
5) 관광공사에 홍보책자 협조요청했음.
6) 서울시치과의사회 구회장단회의에 조직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참석을 요청 받았음.
7) 전국 지부장회의 시에 각 지부장에게 외국치과의사협회와의 자매관계 여부를 파악 할것을 요청 했음.
8) FDI총회(워싱턴)에서의 홍보용부스 제공을 확약받았음(2m×2m).
9) 조직위원장, 부위원장의 재정보증서를 발급했음.(대 : 서울 대학교 총장)
10) 지헌택 APDF부회장의 인도네시아 방무시 적어도 10명이상의 참석을 확인 했다고 홍보했음.
11) 2차 안내문이 홍보위원의 협조속에 잘 진척되고 있음.
12) APDF사무총장과의 서신에서 중공연자 초청시 회원국 국기만 게양하겠음을 통보 하였던바, 문제될것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나. 홍보간행분과위원회(이기택위원)

1) 2차 안내문 편집시 전문가의 검토와 도움으로 내용 및 표지의 편집을 끝냈음.
2) 우표발행시 도안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체신부에 송부하고, 도안은 추천인인 나교수의 도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됨.
3) 아·태회의 기간중 5회의 Daily Newsletter발간과 Abstract발간을 JAMA와 협의중에 있으며 내용은 Daily Newsletter 1회발행시(5,000부) 35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Abstract는 1회에(5,000부) 1,500만원정도 소요되므로 총소요경비는 약 3,250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차기회의시 스폰서 및 정확한 내용을 보고 하겠음.

다. 재무분과위원회(정관희 위원)

1) 8월 30일 현재 아·태준비금 납부율이 60.4%임. 개원의와 공직은 납부에 별문제가 없으나 수련의 556명중 72명 납부, 공중보건의 1,300명정도에서 1명납부, 군진 217명중 10명이 납부한 만치 더욱 많은 홍보가 요구됨.
2) Sub-Committee의 구성은 지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차후에 구성을 완료하겠음.

라. 전시분과위원회(홍순용 위원)

1) Booth배정관계에서 대규모부스를 신청한 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부스우선배정은 대규모 신청상사들을 우선 배정하고 남은 부스를 선착순 배정 하겠음.

마. 행사분과위원회(오안민 위원)

1) 인터컨티넨탈호텔을 학술대회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바, 2층의 총15개방중 10개정도를 이용할 예정으로 있으나 Pre-Congress장소도 겸할시엔 2층방 전부를 임대할 것도 고려하고 있음.
2)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27일 개관되므로 일간 방문한후 계약 하겠다고 함.

바. 학술분과위원회(남동석 위원)

1) 특강연자중 현재까지 Thompson과 박노희만 강연 수락의 연락이 왔고 Pre-Congress는 김승국, 김영호만이 연락이 왔음. Free-Communication연자 신청은 스리랑카 6명, 캐나다1명이 신청해 왔음.
2) 심포지움을 5개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가급적 외국초청연자와의 중첩을 피하려 하고있음.
3) Free-Communication연자신청은 검토후 받아들이겠다고 함.

4. 토의사항.

가. 조직위원장 FAX구입건

1) 조직위원장과의 연락이 서면과 전화로 이루어져 불편함이 많으므로 업무의 신속함

을 위해 FAX가 필요하다고 보고 FAX를 구입 키로함.

나. 등록금 납부건

1) 공중보건의, 수련의, 군진등의 등록금 납부실적이 저조 하므로 협회차원의 협조를 부탁하고, 회비완납관계를 떠나 협회지, 치의신보를 발송하면서 관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다. Daily Newsletter와 Abstract발간건

1) 스폰서를 구해야 하기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확실히 알아본 후에 재논의키로 함.

라. 대회장 임대건

1) 싱가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워크샵을 14차 아·태회의시에 한국에서 열자는 헤네디기의 서신을 감안해서 회의장만 한국측에서 제공하는 조건이면, 수락키로한다고 회신하기로 함.
2)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함.
3) 행사위원회 Sub-Committee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아이디어 제공이 꼭 필요하므로 각 위원들의 아이디어 협조를 부탁함.

마. 부스 배정건

1) 부스배정시 많은 부스를 요청한 업체를 우선 배정하고, 그 다음으로 우선 신청순위로 부스배정을 하기로 하고, FDI총회에 참석하여 Booth Sale이 요구된다고 전시분과위원장이 요청하고 10월 말경 대부분 윤곽이 결정될것으로 보인다고 함.

바. 학술 프로그램 결정건

1) 국내 프로그램을 위해 2주이내에 치협학술위원회를 개최하여5가지 분류의 심포지엄 연제의 추인을 요구할 예정인 바, 조직위원회 학술 위원회에서 우선 추인 받을 수 있도록 조직위원장이 요청함.
2) 학술관계 서신에 대한 회신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학술관계 서신의 답장을 위임해줄것을 학술분과위원장이 요청한 바, 부위원장, 사무총장, 학술분과위원장에게 위임 하면서 아울러 주 강연자중 회신이 없는 사람에게 독촉할것도 위임함.

치과의료장비 종합메이커

영업관리 및 사후관리 연락처

관할부서	연락처	관할지역
전국총괄관리과	02-778-0947	전국
본사사후관리부	02-756-4903	경기·강원
대전사무소	042-22-2805	충북·충남
광주사무소	062-22-4398	전남

SHINHUNG

주식회사 新興

TELEPHONE:778-0941~6

FAX NO. (02)755-8686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58번지

영업관리 및 사후관리 연락처

관할부서	연락처	관할지역
부산사무소	051-22-9010	동부경남, 제주
대구사무소	053-422-4264	경북
마산사무소	0551-2-4642	서부경남
전주사무소	0652-5-5316	전북